

토션

“제5의 힘”은 의식과 동의어인가?

| 브랜든 머피 | 박병오 옮김 |

모든 회전하는 물체에 있다고 여겨지는 토션장은, 모든 생명체의 생체장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토션파는 의식의 장들 간의 상호 영향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다는 것도…… (편집자 주).



사물에 토션을 담는다

이 ‘제5의 힘’인 토션(torsion)을 발견한 것으로 대체로 인정하는 첫 번째 연구는 1800년대 말엽 러시아의 미쉬킨 N. P. Myshkin 교수의 연구였다.¹⁾ 1913년에 아인슈타인의 동료인 엘리 카르탕 Eli Cartan 박사가 시공간의 짜임새를 지나는 이 힘의 비틀림운동을 말하면서 토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지만, 카르탕의 중요한 업적은 아인슈타인 이론들의 큰 성공과 명성으로 사실상 묻혀버렸다. 왓슨과 크릭이 DNA의 나선구조를 찾아냈던 1950년대에 러시아의 선구적인 천체물리학자 코지레프 N. A. Kozyrev 박사(1908-1983)는 이 에너지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면서, 이 에너지가 시간과 같이(그리고 DNA와 다르지 않게) 신성기하학의 (파이 phi) 나선 형태로²⁾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곧 출판될 과학과 형이상학이 만나는 나의 역작 『장대한 환상: 과학과 영성의 통합 The Grand Illusion: A Synthesis of Science & Spirituality, Vol. 1』에서 자세하게 설명된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1990년대에만 수천 편의 논문을 썼다고 알려졌고, 더 최근에는 수상경력에 있는 물리학자 나심 하라메인 Nassim Haramein이 동료 라우서 E. A. Rauscher와 함께 아인슈타인의 장(場) 방정식들을 토크 효과 torque effect와 코리올리 효과 coriolis effect를 포함시켜 고쳤다.

토션장(torsion field)은 스핀 spin 또는 각운동량으로 생기는데, 회전하는 물체 또는 입자는 토션파(torsion waves)를 만들어내고 그것만의 독특한 토션장을 갖는다. 어떤 이들은 토션파가 결정적인 ‘모든 것의 이론(TOE)’, 통일장이론, 또는 대통일이론(GUT)을 찾는 데 있어 잃어버린 고리라고 말한다. 불행하게도, 요즈음의 주류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은 물리이론 그대로는 양자파동의 개념과 조화할 수가 없다.

토션장이 회전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토션장은 외부 토션장의 영향 또는 적용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영향의 결과로, 토션장의 새로운 배열이 준안정 상태(분극 상태)로 고정되고 토션장의 원천이 공간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간 뒤에도 온전하게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공간적인 배열을 가진 토션장은 어떤 물체에도 ‘기록될’ 수 있다.”³⁾ 토션장의 이 독특한 특성들의 작용은 다양한 초능력psi이나 초심리학적 현상과 강력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두교voodoo에서 의도로서 인형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저주를 하거나, ‘비활성물질’에 사건의 정보를 기록해서 나중에 그 기록을 사이코메트리스트psychometrist가 ‘읽어’내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다.)

코지레프, 시간과 토션

코지레프 박사는 실험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토션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런 발견은 의식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에 대한 훨씬 더 완전한 모델을 만들도록 문을 열어준다. 코지레프는 갑작스런 심리적 변화들로 생기는 물리적인 효과를 측정했는데, 이것은 의식이 유체와도 같은 ‘에테르’ 매질 속의 진동과 연결된다는 것을 증명한다.⁴⁾ 자신의 기발한 실험에서 코지레프는 측정 장치에서 나타나는 극미한 변화를 감지해냈는데,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감지하기 어려운 에너지—그는 이것이 시간 그 자체라고 믿었다—를 이용하는 염력과 비슷한 것이었고, 코지레프는 이 에너지가 하나의 통일장 안에서 모든 존재를 통합하면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래서 비국소성 또는 “원격작용”을 가능하게 한

다). 기계장치들에서의 변화는 중력, 뇌우, 계절변화, 물질의 밀도 변화가 그랬던 것처럼 시간/에테르 매질의 밀도를 미묘하게 변화시켰다. 코지레프는 이와 비슷하게 의식이 시간의 밀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발견했다. 감정적인 생각이 지적인 생각보다도 장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측정 장치들은 사람이 흥분된 감정을 느낄 때 특별히 강하게 영향 받는다.” 코지레프의 동료인 나소노프 V. V. Nasonov가 1985년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청중에게 말했다. “예를 들면, 코지레프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파우스트’를 읽을 때 토션밸런스포인트의 방향이 40도 이상 바뀌었습니다. 한편 수학계산을 할 때는 대체로 포인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⁵⁾ 그래서 코지레프는 우리의 생각이 시간의 밀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우리가 시간의 밀도를 마음대로 높이는 능력을 터득하면 텔레파시를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개념대로라면 모든 초능력 현상은 초상현상이라는 장식이 벗겨지고 자연현상의 세계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오스트랜더 S. Ostrander와 슈뢰더 L. Schroeder가 그들의 고전적인 책 『철의 장막 뒤의 초능력 발견들』⁶⁾에서 코지레프를 자신들이 만나본 가장 중요한 과학자라고 확인해준 이유들의 몇 가지일 뿐이다.

의도와 정보를 물에 저장한다

내가 『장대한 환상, Vol.1』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밝히듯이, 다양한 기술에 의해 물질에서 생기는 사실상 모든 이상왜곡효과나 그 밖의 ‘법칙을 무시하는’ 효과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재현할 수 있다. 인간의 의념이 얼음결정에 새겨지는 에모토 마사루 Emoto Masaru 박사의 연구

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발산하는 토션파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를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미내사 2회 추산국제신과학 심포지엄 강연록 참고). 단카 프Dankachov는 1984년에 물이 ‘정적인 토션장을 저장하는 데 훌륭한 매질임을 보여주었다.’⁷⁾ 인간의 의도로 만들어지는 토션장은 물, 특히 이온화된 염분을 가진 물에 그냥 기억된다.⁸⁾ 극미의 수준에서 물의 내부구조는 그에 따른 차이들을 얼음결정에 가져오면서 바뀌었다.



‘사운드 에너지 리서치Sound Energy Research’의 과학자들은 스칼라파 기술을 이용해서 증류수에 토션장의 흔적을 새겨 넣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구조화된 물을 ‘스칼라파 구조화수scalar wave-structured water™’라고 한다. 그들은 이 물의 견본들을 마사루 박사에게 보냈고 박사는 이것들을 얼려서 결정을 연구했는데, 인간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육각형 구조를 이루었다.⁹⁾ 스칼라/토션 기술은 정신적인 의도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곧, 그 어떤 고유의 전자기 속성이나 질량이 없는 토션파는 어쩌면 실재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물리효과를 만들어내는 의식의 ‘반송파carrier waves’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데이비스W. E. Davis 박사의 말로는, 영국 델라웨어De La Warr 가문의 실험실이 오랫동안 특허를 내고 사용했던 싸이오닉psionic 장치는 물체를 둘러싼 L장(생명장)의 사진들을 기록할 수 있는 하이로니머스Heironymus 기계를 변형한 것이었다. 1958년 델라웨어 박사는 보통의 수돗물 한 방울의 사진을 찍었다. 그 결과는 ‘정상적’이었다. 일곱 개

의 밝고 가는 선들이 하나의 중심점으로부터 방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또 한 장의 사진을 찍기에 앞서 한 사제에게 물을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는 ‘눈부신 역선力線들’이 십자가의 모습을 이루었다!¹⁰⁾ 이 현상은 마사루의 연구에서 기록되었듯이 친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물 분자의 형태를 변형시킨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짐작컨대 그 사제가 물을 축복해서 자신의 의도를 새기면서 물 원자들의 회전상태는 그가 가진 토션장에 의해 바뀌었다.

자연에서의 비국소적 상호작용과 토션

식물이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인간의 의도에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인간의식으로 만들어지고 식물에게 보내지는 토션파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식물은 그것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가 자연을 통틀어 파이Phi 비율(나선형 토션에너지의 존재를 뜻하는)을 관찰하고, 식물, 인간, 그리고 동물이 모두 이 수학적으로 새겨진 매트릭스 또는 ‘내재질서 implicate order’로부터 창조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클리브 벡스터Cleve Backster가 인간-식물의 텔레파시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1960년대에 시작됨)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식물이 인간의 생각(토션파를 만들어내는)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벡스터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나가 있다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그의 ‘의도’에 실험실 식물이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전기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반응은 심지어 벡스터가 그 건물 가까이에 있지 않을 때도 그랬다. 벡스터는 식물의 앞에 거짓말탐지기를 연결해

토션파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발할 잠재력을 가졌다.
그것은 결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신비주의자와 오컬티스트의 시각을 인정해주면서
마음과 물질 사이의 틈에 다리를 놓는다.

서 식물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많은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브라인 쉬림프나 심지어 박테리아 군집과 같은 가까이에 있는 유기체의 죽음에도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¹¹⁾

러시아 과학자 빅토르 그레베니코프Victor Grebennikov 박사는 자신이 ‘공동구조효과cavity structural effect’라고 부르는 것을 벌집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찾아낸 곤충학자다. 벌집이 가진 특정 형태가 그것이 두꺼운 금속으로 차단되어있을 때도 사람의 손으로 느낄 수 있는 많은 양의 토션파를 벌집이 활용하고 발산하게 했다. 이 토션파들은 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고, 나무의 뿌리가 벌집을 뚫고 자라지 않고 그것을 돌아서 자라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벌들간에 어떤 형태의 비국소적인 ‘통신’도 하게 한다.¹²⁾ 공동구조효과로 만들어지는 토션은 그레베니코프가 보여주었듯이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은 코지레프의 발견을 재현하는 것이다.¹³⁾

자력과 살아있는 유기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선구자인 프랭크 브라운Frank Brown 박사는 콩을 서로 가까이 놓았을 때 그것들 사이에 정통적인 용어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아냈는데, 이것은 생체장biofield 또는 회전력spin force이 있기 때문인 듯했다. 여기에 생체장이 관여한다는 것은 브라운이 회전과 콩의 상호작용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관찰한 것으로 뒷받침된다. 그는 콩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보다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 서로 더

강하게 상호반응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브라운은 1960년에 식물이 날마다 한결같이 회전하면서 성장해나간다고 보고한 존스 R. I. Jones의 연구에도 관심을 가진다. 시계방향의 회전은 성장을 억제했는데, 이것은 모든 식물의 주위에 있는 회전력이 하나의 인자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¹⁴⁾

인간의 생체장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흐른다고 보고 되기는 하지만, 보통 위에서 보면 시계방향의 힘으로 관측된다. 그 힘을 볼 수 있고 정말로 회전방향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반대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을 내가 최근에 만났기는 했지만, 인간의 스핀장spin field을 이루는 두 개의 서로 맞물린 볼텍스vortex/토션장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된다. 그녀가 관찰하는 것은 임사연구자 애트워터P. M. H. Atwater와 신성기하학 교사인 드룬발로 멜기세텍Drunvalo Melchizedek을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에게서 이미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뒷받침하는데, 멜기세텍은 서로 겹쳐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4면체가 인간 에너지장의 근본적인 양상이라고 주장한다(〈지금여기〉5-4호 ‘미래기억’ 참고). 이런 기하형태는 공간 자체의 ‘구조fabric’가 가진 유체와 같은 속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소용돌이운동의 결과다.

토션의 전도체이자 발생기인 피라미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피라미드 연구는 토션파에 대한 몇 가지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형태가 마치 토션파를 증폭시키는 것처럼 그것을 자연적으로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황금분할(파이Phi를 표현하는)을 가진 물체들은 수

동적인 토션발생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밝혀져 왔다.¹⁵⁾ 사실, 우크라이나 과학아카데미 물리학연구소와 체르노비츠키Chernovitsky 대학교에서 아키모프A. Akimov의 연구진이 한 연구에서는 0:0.618의 파이 ϕ * 비율을 가진 물체가 최고의 수동



적인 토션발생기였다(미내사 4회 취산국제신과학 심포지엄 강연록 ‘토션 드와 그 응용기기’ 참조). 이 결과로 보아 논리적으로 토션파가 파이나선형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¹⁶⁾ 이 나선형의 힘은 생물학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영성적psychospiritual 활동도 증진해줄 수 있다.

러시아 소아산부인과 R&D연구소의 안토노프A. G. Antonov 교수팀은 증류수에 40퍼센트의 포도당이 든 용액을 피라미드에 두었다가 그 효과를 시험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면역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20명의 아기들에게 그 용액을 1밀리리터씩만 준 것으로도, 아기들의 건강상태가 사실상 정상수치로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피라미드에 넣어 둔 보통의 물 1밀리리터만 써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므로 포도당마저도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¹⁷⁾

러시아에서의 또 다른 연구는 토션장의 영향을 받은 ‘피라미드 워터’를 마신 쥐들이 보통의 물을 마신 쥐들보다 종양이 진행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음을 보여주었다.¹⁸⁾

그 밖에도 러시아과학자들은 정적 토션장이 주어진 쥐들은 면역기

* 대문자 “P”로 쓰는 파이는 1.618이고, 반면에 소문자 “p”로 쓰는 파이는 0.618이다. Phi와 phi는 황금분할, 황금비율이다.

능이 크게 나아졌다고 보고했다.¹⁹⁾(우스꽝스럽게도 비효율적이고 비싼 주류의학의 ‘자르고, 도려내고, 태우는’ 암치료기술에 비취볼 때, 이 발견은 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무더진 면도날도 피라미드 안에 넣어두면 강화된 에너지로 그 결정 구조가 재생되면서 저절로 다시 날이 섰다.²⁰⁾ 이 효과를 처음 발견한 (1950년대 말이라고 한다) 카렐 더발Karel Drbal 박사는 이것을 이용한 ‘쿠푸피라미드 면도날 샤프’로 체코 특허를 받았고, 2001년에 크라스노홀로비츠V. Krasnoholovets 박사는 주사전자현미경사진으로 면도날의 분자구조가 정말로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²¹⁾

러시아의 교도소들에서는 ‘피라미드파워’가 총 5,000여명의 수감자들의 범죄행동을 줄였다. 알렉산더 골로드Alexander Golod 박사의 지휘아래 세워진 유리섬유 피라미드들의 하나에 결정질 물질들을 저장했고, 나중에 이것을 교도소에 나누어줬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교도소 안에서의 범죄행동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²²⁾ 마하리쉬Maharish의 초월명상(TM®) 집단들에서 비슷한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수의 명상가들이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함께 모여서 명상할 뿐이다. 연구자들은 명상에 참여한 인원의 1퍼센트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총인원의 정신상태에 더 나은 쪽으로 눈에 띄는 정도의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명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내내 범죄율은 눈에 띄게 그리고 크게 떨어졌고, 그 일이 끝나자 다시 치솟았다.²³⁾ 이것에는 ‘마하리쉬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런 내용들은 토션물리학과 의식을 연구하는 많은 수의 자격을 갖춘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확인한 믿기 어려운 많은 효과들 가운데 겨우 몇 가지일 뿐이다. 높이 44미터의 다른 하나의 피라미드는 1999년

에 골로드 박사가 에드워드 고루베인 Edward Gorouvein의 회사 ‘생명의 피라미드 Pyramid of Life’와 함께 연구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세운 것이다. 그것의 비례도 역시 황금분할(파이phi)을 바탕으로 했다. 레이더로 측정한 결과 믿기 어렵게도 거대하고 기이한 이온화된 에너지기둥이 300킬로미터의 반경(!)과 800미터에서 2킬로미터에 이르는 변화 무쌍한 높이로 이 작은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루베인은 이 이온화방사기둥의 중심이 거대한 볼텍스의 ‘갈때기’형태를 나타낸다고 짐작한다.(토로이드 볼텍스 toroidal vortex는 자연적으로 안정되고 자기지속적인 에너지장으로, 근본적인 우주형태다.)

그뿐 아니라, 보통의 플라스틱 병에 든 평범한 물이 이 피라미드 안에서는 영하 40도의 기온에서도 얼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물병을 치거나 흔들면, 빠른 결정화과정이 곧바로 시작되어서 물은 3초에서 20초 안에 얼어버렸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러시아 북부의 셀리게르 Seliger 호수 근처에 황금분할로 세워진 더 작은 22미터의 피라미드는 아마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변 시골지역에서 멸종했다고 하는 야생화종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시냇물도 그 지역에 생겼고, 황새와 같은 동지를 트는 동물들이 옮겨왔다.²⁴⁾ 대지는 치유되고 재생되고 있었고, (한때 멸종했다가 돌아온 꽃들이 보여 준 것처럼)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듯했다! 시간을 거스르는 이런 분명한 효과는 한층 강화된 에테르적인 토션파가 있음을 나타낸다—시간 그 자체가 조작되고 있었으니 말이다! 러시아와 그 밖의 곳에서 이루어진 많은 피라미드 실험들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새로운 비전을 쥐어준다. 지구의 토션파를 활용하는 고대의 진정한 비전 자적 피라미드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행성을 치유하는 수

단들이 그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피라미드 파워’는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 파워는 의식의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은 (위에서처럼) 실험적으로도, 일화로도 드러난 것이다. 예컨대, 유체이탈 연구자인 로버트 먼로 Robert Monroe가 1980년 즈음에 뉴욕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Westchester County에 있는 자신의 옛날 집을 차로 지나고 있었는데, 이곳은 먼로가 첫 번째 유체이탈경험을 했던 곳이다(〈지금여기〉 9-6호 별책 ‘소리와 소리치유’ 참고). 먼로가 회상하기로는, 그와 함께 차에 있던 심리학자 친구가 그 집을 쳐다보더니 그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그 집 지붕이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라는 말을 했다. ‘피라미드 안에 살고 있었구나. 그게 그렇게 한 거야!’²⁵⁾

고대의 피라미드, 특히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입문의식에서 유체이탈체험과 우주의식체험과 같은 비전秘傳의 여러 역할을 했었다.²⁶⁾ 지구의 기하학적인 에너지 격자 위의 어느 결절 지점에 피라미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생명을 증진시키는 지구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어쩌면 격자 그 자체도 안정시킨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²⁷⁾ 대피라미드가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그리고 20면체의 선들이 모두 교차하는 지구의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볼텍스 위에 세워진’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²⁸⁾

‘고체 상태’의 에너지 전도체인 이집트의 고대 피라미드는 분명히 그저 죽은 파라오를 묻은 무덤이 아니며, 그것만은 확실하다. 피라미드가 나중의 그런 목적들을 위해 만들어졌을 법도 하지만, 이 주제는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고깔 형태나 원통형의 물체는 지구로부터 소용돌이치며 나오는 토션장을 강화하고 집중시킬 것이다. 이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증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식” 또한 그렇게 해준다.²⁹⁾ 대피라미드가 입문의식에 쓰였을 가능성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토션파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발할 잠재력을 가졌다. 그것은 결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신비주의자와 오컬티스트의 시각을 인정해주면서 마음과 물질 사이의 틈에 다리를 놓는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토션을 의식 자체와 동의어이거나 또는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 토션파가 우주의 근원적이고 편재하는 특징이므로 우리는 의식도 어떻게 그러는지를 알 수 있다. 의식은 환경에 국소적으로도, 원격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실재이면서 감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다. 염력 같은 것들의 개념은 그리 ‘자연적’이지 않다. 솔 러크만 Sol Luckman(리제네틱스 기법 Regenetics Method의 창시자) 같은 작가에게 프라나, 기, 오르곤과 같은 용어들은 ‘토션에너지의 빛을 바탕으로 하는 light-based 측면’을 부르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³⁰⁾

토션/스핀장은 우주가 존재하는 데 근본적인 것이다. 이들은 에테르/내재질서/타임스페이스/영점장/진공에 들어있는 분화되지 않은 정보로부터 우리 우주가 창조되어 나오는 일을 매개하기 때문이다. 중력 안에 있는 스핀장 또는 볼텍스처럼, 토션의 힘은 중력을 덜고 무효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장대한 환상, Vol.1』에서 다루는 생각이다.

토션, 초능력, 그리고 뇌

모든 전자기장 또는 정전기장에는 토션 요소가 따르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³¹⁾ 이 말은 모든 유기체와 무기체가 자신만의 특징적인 토션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³²⁾ 대부분의 유기물질이 토션장

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테레빈유와 같은 강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분자는 토션장을 더 세게 하는 반면에, 설탕과 같은 강하게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분자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 러시아에서 이어진 연구들도 폴리에틸렌 필름이 효과적인 토션파 차단 물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³³⁾ 알루미늄도 효과적이었는데, 코지레프는 알루미늄이 시간을 반사하는 뛰어난 물체라고 말했다.³⁴⁾ 만일 상보성의 원리가 모든 축척에서 작용한다면, 토션물리학 연구자이자 특허소지자인 유르스D. G. Yurth가 지적하듯이, 그것은 우리가 국소적/선형적 효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비국소적/비선형적(토션/스칼라) 효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³⁵⁾

이와 관련하여, 코지레프는 토션파가 공간을 엄청난 속도로—광속의 수 십억 배로—움직일 수 있음을 알아냈는데, 이것은 토션파가 현재는 물론 미래와 과거로도 전파된다는 뜻으로,³⁶⁾ 이것을 이용하면 역행인지와 예지, 곧 다른 말로 하면 과거나 미래를 훑쳐보기를 비롯한 초능력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과거에 멸종한 야생화가 저절로 되살아나게 했던 피라미드 실험을 떠올려보라.) 토션파를 공간을 통해서가 아닌 시간(또는 타임스페이스/에테르/내재질서) 영역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실시간(즉각적인)으로 일어나는 텔레파시 소통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자 덜 ‘이상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현상들이 대개 우리에게 ‘비인과적(acausal)’으로 보이지만(시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전자기적인 에너지나 힘의 뚜렷한 교환이 없고, 그래서 시간지체가 없기 때문에), 토션파는 ‘인과적 비국소성(causal nonlocality)’을 통한 비국소적인 상관관계를 가능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토션/스칼라 힘은 실제로 양자비국소성의 본보기다.

토션 '에너지'가 만일 내재질서 안에서 작용하는 의식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심오한 내용이다. 이것은 융Jung의
동시성현상과, 어떤 사람과 사건을 멀리서 우리에게 끌어오는
우리의 능력을 도와주는 잃어버린 고리가 되는 듯하다.

아키모프A. Akimov의 말을 빌리면, 표준적인 전기장, 자기장, 그리고 중력장과 결합된 토션장은 과학의 영역이 의식의 효과까지도 포괄하도록 확장될 하나의 통일장이론을 제시할 것이다. 실험들에서 토션 파가 물질의 회전구조에 미치는 어떤 효과들은 초능력자만이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과학자 쉬포프 G. I. Shipov는 토션장이 전자기에너지를 보내지 않고도 정보를 보낸다고 했다.³⁷⁾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말까지 …… 토션발생기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든 ‘현상’(염력과 초감각적 지각과 같은)을 우리가 재현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초능력자’도 보여주지 않은 효과도 보여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³⁸⁾

아키모프의 연구진은 뇌를 토션전송기인 동시에 수신기인 비자기 스핀 토션시스템으로 묘사했다.³⁹⁾ 아이오나 밀러 Iona Miller는 온라인에 올린 글 하나에 “고정적인 스칼라(토션)파는 공진공동 resonant cavity 안에서 정확히 180°가 다른 위상에서 결합해서 스칼라공명을 통해 제로섬 zero sum을 만들어낸다. 바로 그런 공진공동이 뇌 안에, 뇌하수체와 솔방울샘(송과체) 사이에 있다. 이 포텐셜 potential 파동은 서로 공동변조하고 하나의 제로-벡터시스템[스칼라] 파동으로서 ‘함께 잡기거나 맞물린다’. 이것은 차원들 사이의 혼선 또는 변형을 감안하는 것이다.”⁴⁰⁾

흥미롭게도, 솔방울샘(송과체)은 환각물질인 DMT를 생산한다고 여겨지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영의 물질 spirit molecule’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은 직관적인 활동과 신비체험들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이 어쩌면 초차원적인 스칼라/토션파를 위한 안테나와 그 증폭기로 작용하는 것일까? 솔방울샘과 뇌하수체 사이의 공동에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높은 수준의 DMT 생산을 자극해서 우리가 현실의 다른 수준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걸까? 릭 스트라스만 Rick Strassman이 DMT를 가지고 자원자들에게 한 흥미진진한 실험들은 정맥주사된 DMT가 극도로 현실적인 다른 차원의 경험들을 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경험들은 인간이 아닌 지적 존재와의 접촉으로 가득하고, 그 존재들의 일부는 UFO와 납치에 대한 보고에 나타나는 ‘외계인’을 닮았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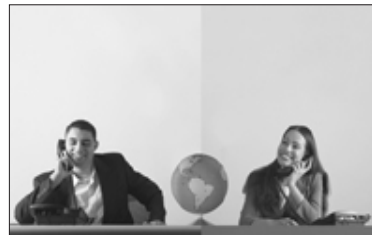
독립적인 베테랑 과학자인 톰 베어든 Tom Bearden 증령의 말을 빌리면, “마음의 모든 작용은 시간과 같은데, 곧 그들은 스칼라 전자기 광자함수 photon functions와 스칼라 전자기 파동함수 wave functions로 이루어진다(〈지금여기〉 3-1호 ‘에너지학’ 참고). 그러므로 마음은 시간 영역(에테르)에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전자기시스템이다.”⁴²⁾ 달리 말해, 마음은 물질 세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비국소적인 ‘내재’영역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현실을 위한 홀로그램 형판(스칼라 포텐셜의 장으로도 부른다)이다.

토션장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홀로그램과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많은 속성이 실험적으로 규명되어왔다.⁴³⁾ 따라서 의식도 그렇게 한다.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비슷한 것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일이 오랫동안 형이상학적인 교의가 되어왔던 것은 여기에 딱 들어맞으며, 토션장 역학에서도 이것은 사실이다.⁴⁴⁾ 토션 ‘에너지’가 만일 타임스페이스/에테르/영점장/내재질서 안에서 작용하는 의식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심오한 내용이다. 이것은 융 Jung의 동시성현

상과, 어떤 사람과 사건을 멀리서 우리에게 끌어오는 우리의 능력을 도와주는 잃어버린 고리가 되는 듯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


우리가 우주 어느 곳에 있는 정보에도 접근하게 해주는 원격투시와 그 밖의 의식의 기능과 같은 초능력 현상에 있어서, 토션장의 중요성은 이제 명백해져야 한다. 멀리에서 일어나는 천체물리학적 사건과 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데 토션장을 이용한 다양한 과학자의 중력측정gravimetric 장치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얻는다. 그 결과들은 우주의 어느 장소에 있는 정보를 다른 어느 위치에서도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뒷받침한다.⁴⁵⁾

그와 같이, 토션장을 만들어내면, 정보는 그것으로 ‘쏟아 부어져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주의 다른 곳에 즉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로켓주소에서 비선형장(내재질서/에테르)에 집어넣는 그 정보 ‘꾸러미들’은 원래의 장소에서 토션장을 만들어낸 장효과와 일치하기만 하면 홀로그램 속의 다른 어떤 주소의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⁴⁶⁾ 2001년에 하르트무트 뮐러Hartmut Müller 박사는 중력에 있는 스핀/토션장을 이용해서 독일의 퇴즐러 메디엔타게Toezler Medientage 빌딩에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burg로 실시간 전화를 걸었는데, 여기에 전자기장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통화는 정상적인 전자기통신시스템에서 생기는 시간지체가 없는 즉각적인 것이었다.⁴⁷⁾ 그런 통신시스템이 있으면 시공간을 거쳐 전파되는 침투해 들어갈 전자기 신호가 없기 때문에 빅브라더/정부



가 당신의 전화 통화를 ‘도청’하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다.

결론

능력과 의식 연구자들은 마음의 작용과 관련하여 전형적으로 전자 기밖에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 동안에도 의식의 특이한 ‘양자적’ 작용을 설명하는 데는 훨씬 더 감지하기 어려운 ‘제5의 힘’(1913년 이후로 토션으로 알려진)이 줄곧 생체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어 왔는지도 모른다. 물리학자 마이클 텔보트 Michael Talbot는 1990년대 초에 고전적인 책 『홀로그램 우주』(한국어판)를 썼는데, 여기서 일부 제대로 된 초능력자들이 인간의 아우라 또는 생체장의 부분을 이루는 또 다른 비전자기 힘이나 에너지의 존재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정확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미쉬킨, 카르탕, 코지레프, 골로드와 같은 선구자와, 지면의 한계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그 초능력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생체장을 이루는 또 다른 ‘신비로운’ 비전자기 부분이 토션, 곧 의식 자체의 근본적인 반송파였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끝) 

참고문헌

- 1) 유르스(D. G. Yurth), “토션장 역학(Torsion Field Mechanics)” www.clayandiron.com/news.jhtml?method=view&news.id=1509.
- 2) 러크만(S. Luckman), 《의식 있는 치유(Conscious Healing)》, 1st edn, Booklocker Publishing, 2006, p.52.
- 3) 벤포드(M. S. Benford)의 “스핀의사들: 생체에너지 치유의 역학을 이론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Spin Doctors: A New Paradigm Theorizing the Mechanism of Bioenergy Healing.)” 참조. www.journaloftheoretics.com.
- 4) 더 자세한 내용은 내 책 《장대한 환상, Vol. 1》 참조.
- 5) 레비치(A. P. Levich)의 “시간현상을 이해하는 길 위에서: 자연과학에서의 시간의 구조(On the Way to Understanding the Time Phenomenon: the Constructions of Time in Natural Science)” 2부 “코지레프의 ‘능동적인’ 시간 속성(The ‘Active’ Properties of Time According to N. A. Kozyrev)”에서 인용. World Scientific, 1996, pp.1-42.
- 6) 오스트랜더 & 슈로더, 《철의 장막 뒤의 초능력 발견들(PsyPsychic Discoveries Behind the Iron Curtain)》, Bantam Books, 1970. pp.160-9.
- 7) 위처링크(J. Wicherink), 《왜곡된 영혼들의 깨어남(Souls of Distortion Awakening)》, 14판 ed. Neil Haddon. 14th edn, 2008. p.101. www.soulsofdistorsion.nl/SODA_toc.html.
- 8) 톰 베어든(T. Bearden), www.cheniere.org/correspondence/101503.htm.
- 9) 위처링크, 위의 책, pp.101-2.
- 10) 데이비스(W. E. Davis)의 “블랙박스과 그 밖의 사이키 발생기들(The Black Box and Other Psychic Generators)”, 1987.을 참조하기 바란다. www.bibliotecapleyades.net/ciencia/ciencia_psycho17.htm.
- 11) 클리브 벅스터, 《일차 지각(Primary Perception)》, White Rose Millenium Press, 2003. 참조.
- 12) 데이비드 윌콕(D. Wilcock), “신성한 우주(The Divine Cosmos)”, 9.7.2장. www.divinecosmos.com
- 13) 같은 글, 9.6장.
- 14) 페인(B. Payne), “생체장: 다른 유형의 자력인가?(The Biofield: A Different Type of Magnetism?)”, Nexus 15(4), 2008.
- 15) 유르스, “토션장 역학”, 위의 글.
- 16) 윌콕, “신성한 우주”, 9.5장.
- 17) 라이얼 왓슨(L. Watson), 《자연(한국어판)》, 물병자리, 2001.

- 18) 월콕, “신성한 우주”, 9.7.3장.
- 19) 벤프드, 앞의 글 참조.
- 20) 왓슨, 3장 참조.
- 21) 월콕, 《소스필드(The Source Field Investigations)》, Dutton, 2011. p.140-1.
- 22) 국제피라미드연구협회(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Pyramid Research), www.gizapyramid.com/russian/press-release.htm.
- 23) 내 책, 11장.
- 24) 에드워드 고루베인, “과학과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www.pyramidoflife.com/science.htm.
- 25) 로버트 먼로, 《먼 여정들Far Journeys》, Main Street Books, Doubleday, 1985. p.4.
- 26) 이 내용을 소개해주기 위해 그레함 헨콕(G. Hancock)의 《신의 지문(한국어판)》, 헨콕 & 바우벌(R. Bauval)의 《스핑크스의 메시지(The Message of the Sphinx)》, 웨스트(J. A. West)의 《날개달린 뱀(Serpent in the Sky)》, 미첼(J. Michell)의 《아틀란티스를 바라본다(The View Over Atlantis)》, 드룬발로 멜기세덱(Drunvalo Melchizedek)의 《생명의 꽃을 둘러싼 고대의 비밀(The Ancient Secret of the Flower of Life)》을 읽어보길 바란다.
- 27) 내 책 참조.
- 28) 월콕, “시대전환Shift of the Ages”, 11장 참조.
- 29) 같은 글. 3장.
- 30) 리크만, 앞의 책. p.66.
- 31) 벤프드, 그리고 유르스의 “토션장 역학” 참조.
- 32) 코로트코프(K. Korotkov), 《삶 뒤의 빛Light After Life》, Backbone Publishing, 1998. p.148.
- 33) 월콕, “신성한 우주”, 1.20장.
- 34) 레비치, 앞의 글.
- 35) 유르스, “가장자리를 지나 보기(Seeing Past the Edge)”, p.213.
- 36) 노웁(A. M. Nowak), “토션장: 물리진공의 이론(Torsion Fields: Theory of Physical Vacuum)”, www.eioba.com/a85528/torsion_fields_theory_of_physical_vacuum_shipov_and_heim, 그리고 나의 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속의 오컬트 에너지(The Occult Energy Behind the Sense of Being Stared At.)”도 보기 바란다. www.brendandmurphy.com.
- 37) 노웁.
- 38) 같은 글.

- 39) 코로트코프, p.148.
- 40) 아이오나 밀러, “별의 여신을 해부한다(Anatomy of the Star Goddess)”.
<http://zero-point.tripod.com/stargoddess/anatomy.html>.
- 41) 릭 스트라스만, 《DMT》, Park Street Press, 2001. 참조
- 42) 모건(B. Morgan), “스칼라전쟁: 스칼라전자기학의 멋지게 새로운 세상(Scalar Wars: The Brave New World of Scalar Electromagnetics)”. www.prahlad.org/pub/bearden/scalar_wars.htm.
- 43) 유르스, “가장자리를 지나 보기”, p.136.
- 44) 나찰로프(Y. V. Nachalov)와 소콜로프(A. N. Sokolov)의 “새로운 장거리 작용들의 실험연구(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New Long-Range Actions)”
 참조. www.rexresearch.com/torsion/torsion1.htm.
- 45) 유르스, 위의 글. p.136
- 46) 2012년 2월 1일, 유르스가 내게 보낸 이메일.
- 47) 월콕, 《소스필드》, p.257.

- 이 글은 『Torsion - a 5th force』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브랜든 머피**(Brandon Murphy) | 곧 발간될 『The Grand Illusion: A Synthesis of Science and Spirituality(Vol's 1&2)』을 집 한 호주 태생의 신예 저자.

여러 해에 걸친 이 획기적인 연구는 (2012년 후반에 1권 출간 예정) 의식과 실재의 본질에 대한 영적·과학적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 인류의 각성을 촉진할 것이다.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식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www.thegrandillusion.webs.com

www.facebook.com/The.Grand.Illusion.Books

역자 | **박병오** | 〈지금여기〉번역위원